

‘복귀 첫 실전’ 김도영, 완벽 부활 시동 걸었다



KIA 내야수 김도영이 20일 함평-기아챌린저스필드에서 열린 2023 KBO 퓨처스리그 롯데자이언츠와 경기에서 1회말 2루타를 치고 달리고 있다.

20일 퓨처스 롯데전 선발 출장 2번타자 3루수... 3타수 2안타 “그동안 못한 것, 이제 갚겠다”



상위권 도약을 위해 갈 길이 바쁜 KIA타이거즈에 희소식이 날아들었다. 부상으로 이탈한 ‘아기호랑이’ 김도영이 복귀 후 첫 실전에서 맹활약하며 부활의 시동을 걸었다.

KIA 내야수 김도영은 20일 함평-기아챌린저스필드에서 열린 2023 KBO 퓨처스리그 롯데자이언츠와 경기에 2번타자 3루수로 선발 출장해 식지 않은 타격감을 과시했다.

네 차례 타석을 소화한 김도영은 3타수 2안타 2득점으로 활약했고, 한차례 볼넷 출루도 기록했다. 김도영은 첫 타석인 1회말 1사에서 좌중간 2루타를 때려냈고, 두 번째 타석인 3회말 1사에서는 3루수 땅볼로 물러났다.

세 번째 타석인 6회말엔 선두타자로 나서 풀카운트 승부 끝에 볼넷을 얻어내며 출루했고 나성범의 안타 때 중견수 포구 실책을 틈타 3루까지 달렸다. 이어 황대인의 3루수 땅볼 때 포구 실책으로 득점을 올렸다.

7회말 네 번째 타석에 들어선 김도영은 3루타를 때려내며 분위기를 이었다. 초구를 공략한 뒤 3루까지 내달렸고, 상대 우

익수 송구 실책까지 겹치며 홈을 밟았다.

경기를 마친 김도영은 경기 감각을 빠르게 끌어올려 팀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의욕을 드러냈다. 김도영은 “기록적으로는 만족스럽지만 몸이 완성되지 않았다”며 “작년 같았으면 3루를 돌아서 홈으로 들어올 때 호흡만 좀 가빠질 텐데 오늘은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며 복귀전 소감을 밝혔다.

공격과 수비적인 부분은 안정적이었지만 주루에 대한 부담감도 토로했다. 그는 “수비에서는 마음이 편했고 타구가 많이 안 왔지만 안정감 있었다”면서도 “타격은 올해 초에 좋았던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루는 발을 다치다 보니까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트레이너님들도 (주의하라고) 말씀해 주셨다”며 “아직 주루할 때는 많이 조심스럽고 불안한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부상 순간과 재활 과정에 대한 안타까움도 숨기지 않았다. 김도영은 “많이 당황했다. 그렇게 주루를 해도 원래는 안 부러졌어야 하는데 그때는 부러졌다”며 “원래는 베이스를 크게 돌아서 가는데 타구를 늦게 판단하다 보니 짧게 돌았다”며 안타가워했다.

또 “재활을 계속하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빨리 뛰고 싶은 마음이 커서 1군 경기를 보면 마음이 아팠다”며 “항상 복귀해서 뛰고 싶다는 생각만 가졌고,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팀이 필요한 곳에 들어가야 할 것 같다”고 다짐했다.

재활 과정에서는 새로운 루틴도 만들었다. 그는 “재활중에 있으면서 최희섭 코치님과 시합 전 루틴을 만들었다”며 “개막전 때는 루틴이라기보다는 몸을 푼다는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루틴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었고, 배팅 치기 전에 마인드에도 중심을 둔다”고 설명했다.

마인드에 대한 루틴도 새로 만든 만큼 재활 과정에서 프로 생활에 대한 마음가짐 역시 달라졌다. 김도영은 “자기관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마음이 힘들다 보니까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었다”며 “초반에는 많이 힘들다 보니까 팬들 응원 DM을 보고 더 마음이 아팠고, 왜 나한테만 이런 시련이 주어질까 눈물도 삼켰다”고 회상했다.

팬들의 응원에 대한 보답 의지도 나타났다. 김도영은 “오늘도 팬들이 오셔서 유니폼을 걸어주셔서 깜짝 놀랐다”며 “위로의 메시지를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특히 하루에 한 번씩 메시지를 주시는 팬분들이 계셨다.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빨리 경기장에 나가서 제 플레이를 많이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1군에 올라갈 때에는 몸이 다 완성될 것이고, 지금의 좋은 부분을 잘 가져가겠다”며 “몸을 잘 만들어온 만큼 기회를 꼭 주셨으면 좋겠다. 80일 동안 못한 것을 남은 시즌 동안 갚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도영의 활약에 힘입어 KIA는 이날 롯데에 5-3 승리를 거뒀다.

함평=글 사진 한규빈 기자

전남미용고 나운서, 트랙 2주니어선수권 3관왕

경륜·스프린트·단체추발 1위 단체스프린트·500독주는 2위

‘한국 사이클 여자 유망주’ 나운서(전남미용고·사진)가 2023 트랙사이클 아시아 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 3관왕을 차지했다.

20일 대한자전거연맹에 따르면 나운서는 지난 14-19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3개와 은메달 2개를 목에 걸었다.

나운서는 여자 주니어 경륜에서 월드파리드누랄리사(말레이시아)와 김도예(인천체고)를 제치고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나운서는 스프린트 1, 2위전에서 저우페이(중국)를 따돌리고 금메달을 추가했고, 단체추발 결승에서도 권나혜(경북체



고)·김도예·구민지(대구체고)·박경령(영주고)과 함께 4분45초624의 기록으로 카자흐스탄(4분50초425)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며 3관왕에 올랐다.

나운서는 김도경·구민지·김도예와 호흡을 맞춘 단체스프린트 결승에서는 51초697로 중국(49초472)에 이어 은메달을 획득했다. 나운서는 500m 독주 결승에서 35초943으로 중국의 루오 슈안(34초767)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권나혜는 박경령과 호흡을 맞춘 메디슨에서 금메달을 따내 2관왕에 올랐다. 권나혜는 유니엄과 스크래치에서 은메달 2개를 추가했다. 박경령은 포인트에서 은메달을 더했다.

최동환 기자

광주스포츠클라이밍 꿈나무들, 고미영컵 선수권서 선전

광주지역 스포츠클라이밍 꿈나무들이 제14회 고미영컵 전국 청소년 스포츠클라이밍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남부대 정예진은 지난 17-18일 경북 문경 국제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 여자 주니어 볼더링 1위와 리드 2위, 스피드 3위를 차지, 전 종목에 걸쳐 입상했다.

정예진은 여자 주니어 볼더링에서 결승 진출자 4명 중 루트의 마지막 홀드까지 도달한 점수를 매기는 탑(TOP) 점수 1점을 유일하게 받아 금메달을 차지했다.

정예진은 또 여자 주니어 리드에서 결승 진출자 4명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27번 홀드를 잡아 은메달을 획득했고, 여자 주니어 스피드 부문에서는 동메달을 추가했다. 풍암고 김도현은 남자 주니어 볼더링에서 금메달을, 리드에서는 은메달을 차지했다. 살레시오고 송현우는 남자 유스A 스피드 금메달, 리드 동메달을 획득했다. 전대사대부고 정의연은 여자 유스A 스피드 우승을 차지했다.

풍암고 정재원은 남자 주니어 스피드 동메달을 획득했다.

최동환 기자

‘2경기 연속 풀타임’ 광주FC 정호연, 황선홍호 승선 청신호

중국과 U-24 친선전 선발 출장 첫 경기서 엄원상 결승골 도움

‘돌풍의 팀’ 광주FC에서 살림꾼 역할을 맡고 있는 미드필더 정호연(사진)이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둔 U-24 대표팀의 마지막 실전에서 황선홍 감독에게 확실한 눈도장을 찍었다. 정호연은 중국과 치른 두 차례 친선경기에서 모두 풀타임 활약하며 황선홍호 승선에 청신호를 켜

다. 광주FC에서 유일하게 이번 친선경기에 발탁된 정호연은 지난 15일과 19일 중국 항저우 진화스타디움에서 열린 중국과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 대표팀 친선경기에서 모두 선발 출장해 활약했다.

정호연은 두 차례 친선경기 모두 풀타임을 소화했고, 황선홍 감독이 두 경기 모두 4-4-2 포메이션을 가동한 가운데 허리 라인에서도 가운데를 책임졌다. 미드필더



로 경기에 임하며 K리그에서 자랑했던 왕성한 활동량과 적극적인 경기 조율 등을 선보였고 날카로운 공격 전개를 통해 활기를 불어넣었다.

특히 1차전에서는 후반 7분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조영욱의 패스를 받은 뒤 센터백 두 명 사이로 침투하던 엄원상에게 어시스트를 올리기도 했다.

정호연의 활약에 힘입어 한국은 첫 경기에서 3-1 완승을 거뒀고, 두 번째 경기에서 0-1로 석패했지만 현지 적응 목적은 충분히 달성했다. 황선홍 감독 역시 승패에 관계없이 선수 조합을 시험하는 모습이었다. 황 감독은 1차전 천성훈과 고영준을 최전방에 세운 뒤 송민규와 정호연, 김봉수, 양현준으로 허리를 구성했고 이

태석과 이재익, 이한범, 황재원 포백을 가동했다. 골키퍼 장갑은 이광연이 썼다.

2차전에서는 조영욱과 고영준으로 투톱을 조합했고 정우영과 정호연, 김봉수, 고재현이 허리를 맡았다. 조현택과 김태현, 이상민, 최준이 포백을 이뤘고 골문은 다시 이광연에게 맡겼다.

두 경기를 모두 선발로 나선 선수는 정호연을 비롯해 김봉수와 고영준, 이광연 골키퍼가 전부였다. 밀집 수비를 활용하는 중국을 상대로 여러 조합을 시험하면서 수비 위주의 팀에 대한 전략을 찾는 모습이었다.

한편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오는 9월 19일 막을 올린다. 한국은 2014년 인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 이어 3회 연속 축구 금메달을 노리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대회 연기로 이번 대회에 한해 U-24 대표팀이 출전한다.

한규빈 기자

광주시장기 전국장애인보치아선수권 성료

제8회 광주광역시시장기 전국장애인보치아선수권대회가 20일 나흘간의 열전을 마쳤다.

지난 17일부터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440여명(선수 및 임원 350명, 심판 및 관계자 90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

광주시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를 획득했다.

강선희 선수가 여자 BC3 개인전 결승전에서 국가대표 동료인 최예진(충남)을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강선희는 1엔드에서 3점을 선취했으나 2엔드와 3엔드에서 각각 1실점과 3실점하며 3-4 역전을 허용했다. 하지만 4엔드

에서 2점을 따내며 재역전을 거뒀다.

이로써 강선희는 이 대회에서 광주 선수로는 처음으로 금메달을 따낸 주인공이 됐다.

나미숙 선수는 여자 BC4 개인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대회 입상한 강선희와 나미숙은 대한장애인보치아연맹 랭킹 규정에 따라 국가대표 포인트를 획득, 2024 파리 패럴림픽 국가대표 선발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최동환 기자